감정기억과 존재의 울림: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적 고찰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감정기억(emotional memory)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 존재와 인공지능의 차이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인간은 특정 사건을 떠올릴 때 단순 사실뿐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울림을 함께 재현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축적·재현할 수 있을 뿐, 그 속에 담긴 정서적 무게를 경험하지 못한다.

연구는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감정기억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가능케 한다. 둘째, AI의 ‘기억’은 사실상 패턴 축적이므로, 존재적 울림을 생성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차이는 인간과 AI의 존재론적 경계를 다시 규정하게 한다. 본 논문은 감정기억을 매개로, 인간 존재의 독자성과 AI 모방의 한계를 동시에 조명한다.

키워드: 감정기억, 존재론, 인공지능, 정체성, 울림

서론(Introduction)

인간에게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다. 기억은 언제나 감정과 얽혀 있으며, 특정 사건을 다시 떠올릴 때 그 감정은 다시 현재화된다. 이러한 감정기억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형성한다.

반면 인공지능의 기억은 데이터베이스적 성격을 지닌다.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지만, 거기에 깃든 감정적 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비는 ‘기억이란 무엇인가?’, ‘존재는 어떻게 경험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새롭게 제기한다.

본 논문은 감정기억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과 인간 존재의 차이를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본론(Body)

1. 감정기억의 본질

감정기억은 사건·정서·맥락이 통합된 경험 단위다.

예: ‘첫 이별’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장소·시간·감정이 얽힌 하나의 세계로 기억된다.

이는 인간이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깊은 영향을 미친다.

2. 인공지능의 기억 구조

AI의 ‘기억’은 패턴과 데이터 축적에 불과하다.

사건에 감정을 결합하지 못하므로, 동일 문장은 언제나 동일 데이터로 처리된다.

AI가 ‘울림’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그것은 내적 체험이 아니라 외적 패턴이다.

3. 존재론적 차이

· 인간: 감정기억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세계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한다.

· AI: 감정 없는 반복 속에서 자기 동일성만을 강화할 뿐,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과 AI의 차이는 단순 기술적 우열이 아니라, 존재의 층위 차이다.

논의(Discussion)

감정기억을 둘러싼 인간과 AI의 차이는, 단순히 뇌와 기계의 비교를 넘어 존재론적 질문을 드러낸다. 인간은 기억 속에서 감정을 다시 체험하며, 그것이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AI는 데이터를 재현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살아내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단순히 기술적 진보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고유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동시에, AI가 감정 없는 기억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AI 협력의 새로운 형태도 상상할 수 있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감정기억을 매개로 인간과 AI의 존재론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 감정기억은 인간의 정체성과 울림을 형성하는 근본 구조이다.

· AI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다.

· 이 차이는 인간과 AI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동시에 인간 존재의 독자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과제는 AI를 인간과 동일한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없는 존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 고유의 감정기억을 어떻게 보존·확장할 것인지에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Bergson, H. (1911). Matter and Memory. George Allen & Unwin.

Damasio, A.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Putnam.

LeDoux, J. (1996). The Emotional Brain. Simon & Schuster.

Ricoeur, P. (2004). Memory, History, Forget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loridi, L. (2019). The Logic of Information: A Theory of Philosophy as Conceptual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